



경계 요인이 부각되는 상황

1. 저항대에서 계속되는 공방

- KOSPI, 1월 고점대 위치한 3,200~3,266pt 수준에 강한 저항대 존재. 추가 상승 시도 있더라도 돌파 쉽지 않을 전망
-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저항대 돌파 시도 이어지면서 중장기 이평선 상승세 형성. 지지대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

2. 달러 약세와 구리 가격 강세 진정 가능성

- 3월 말 이후 달러화 지수 하락세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시장 상승. 91pt 수준에서 하락 속도 둔화. 단기 저점 연결한 추세선 근접해 하락세 진정 가능성 부각
- 구리가격 급등세 보이는 가운데 2011년 고점대 근접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 110%까지 확대되어 상승세 둔화 가능성 높음

3. 단기 저점을 확인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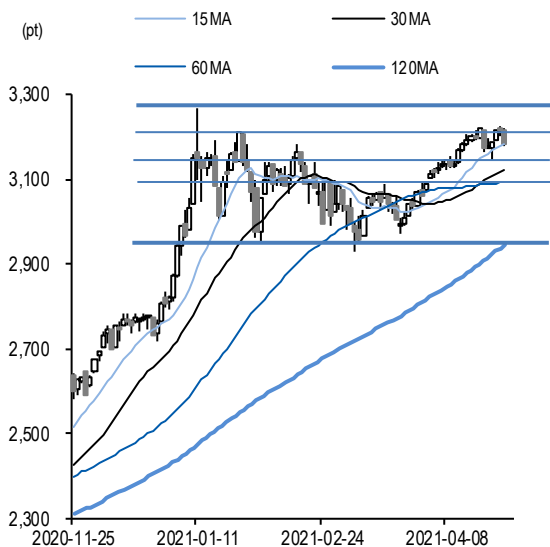
-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1.53%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 확보 후 반등. 단기 고점에서 그은 하락 추세선과 15일 이평선 회복해 추가 반등 가능성 부각
-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 이틀 전 7,648계약에서 전일 312계약으로 감소. 순매도로 돌아서지 않았지만 거의 중립 상태로 횡보 내지 단기 조정 가능성 타진할 수 있는 모습

1. 저항대에서 계속되는 공방

KOSPI가 지난 4월 20일 3,200pt 대 돌파 시도에 나선 후 단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했지만 3,220pt 수준에서 상승이 제한되었다. 지난 번 자료(4/20)에서 밝힌 바와 같이 3,200~3,260pt 수준에 위치한 지난 1월 고점대는 매우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격대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 가격대의 저항을 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전고점의 저항이 강한 가운데 매수세가 약하면 전고점 부근에서 바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난 4월 20일 1월 고점대의 저항 돌파 실패 후에 제한된 수준의 조정만 거치고 다시 상승시도가 이어져 저항도 강하지만 매수세도 그리 약한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4월 초에 60일 이평선을 회복한 후 지속적으로 동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60일이평선이 상승 전환되었고, 중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된 가운데 상승세를 형성해 다시 약세로 진행되더라도 또 다시 상승 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 방향성이 없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조정국면이 진행되면 3,150pt 또는 3,100pt 등이 단기로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6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동 이평선이 저항으로 확인되어야 증장기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차트1] KOSPI 일봉, 3,200~3,266pt 수준의 저항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상승 시도 지속될 수 있지만 1월 고점대 돌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나스닥 종합지수 일봉, 전고점 저항대에서 상승 제한. 조정 시 단기 저점대 형성 위치가 중요. 단기 저점 높아지면 점차로 돌파 가능성 타진할 수 있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달러 약세와 구리 가격 강세 진정 가능성

지난 3월 말 이후 상승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달러화 지수의 약세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달러화지수와 KOSPI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3월 말 이후 달러화지수가 꾸준히 하락세를 형성하는 가운데 KOSPI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 4월 중순 경에 120일 이평선과 2월 고점대가 위치한 91.5pt 수준에서 지지대가 형성되어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탈 후 낙폭을 확대했다. 다만 91pt 부근에서는 양봉과 음봉이 반복되면서 하락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추가 하락 시 올해 초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의 지지대가 존재해 지금부터는 하락세가 진정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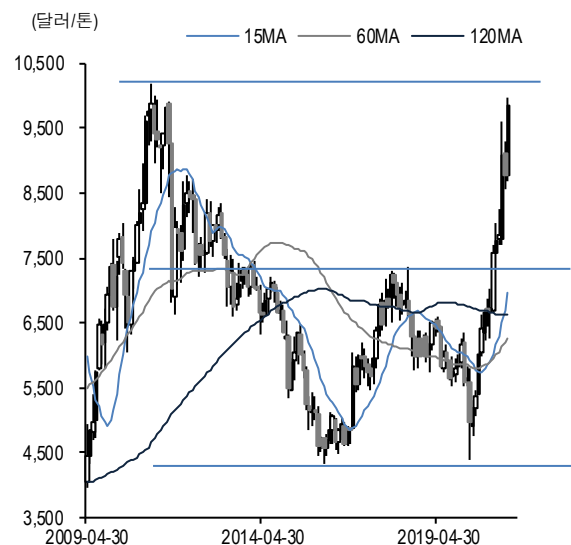
한편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과 친환경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구리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당분간 상승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구리 가격이 2011년 고점대 저항에 도달했고, 일봉상 60일 이평선 이격도가 110%에 해당하는 등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 속도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계요인들이 부각된다면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트3] 달러화 지수 일봉, 3월 말부터 하락세 지속되고 있지만 하락 속도 둔화되는 가운데 단기 저점 연결한 추세선 근접해 바닥권 형성 가능성 부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전기동 월봉, 상승 국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고점대 저항 근접해 강한 저항 예상. 일봉상으로 60일 이평선 이격도 110% 수준으로 가격 부담 존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단기 저점을 확인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7, 28일에 걸쳐서 열리는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4주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3월 말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3% 수준의 지지력을 재차 확인하고 반등했고, 이 과정에 일봉상 하락 추세선과 15일 이평선까지 회복해 반등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2~3월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국채 금리의 반등은 부담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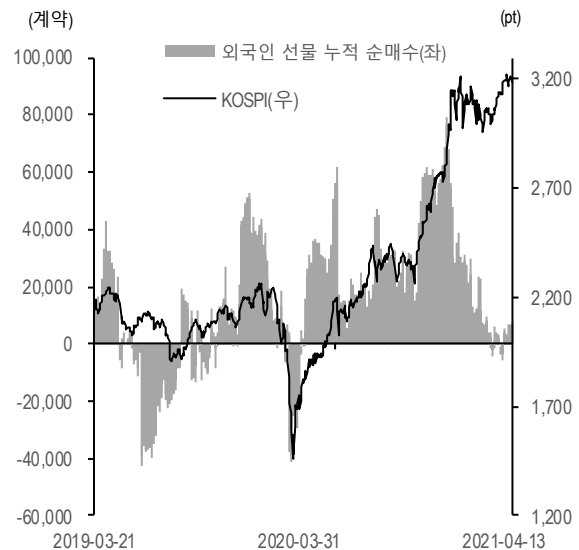
한편 KOSPI200 관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포지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롤오버와 미니선물을 포함한 외국인 KOSPI200 선물 누적 순매수는 이틀 전 7,648계약 순매수였지만 전일 KOSPI200 선물 9,140계약 순매도와 미니선물 순매수로 인해 누적 순매수 규모는 312계약으로 줄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단기 방향성을 잘 추적하기 때문에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닐 것이다. 다만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모습이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적이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기 하락 내지는 불규칙한 횡보 국면을 예상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차트5]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일봉, 1.53% 수준에서 바닥 형성 후 반등. 단기 하락 추세선과 15일 이평선 돌파 해 추가 상승 가능성 부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추이, 미니선물과 롤오버 포함 전전일 7,648계약 순매수에서 전일 312계약으로 감소. 단기 조정 내지 횡보 가능성 타진할 수 있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